



정교선
현대홈쇼핑 회장 승진
신성장동력 확보 매진
L1



Life

삼성·LG
美 타임지서
올해의 발명품 선정
L2



“피로 개선에 효자역할 ‘톡톡’... 통증엔 역시 펭귄이 제일”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제일약품, 펭귄파스 ‘제일파프’

파스 명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국민 파스 ‘제일파프’가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984년 3월 16일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제일쿨 파프’는 붙이는 형태의 진통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당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일쿨파프는 살리실산메틸이라는 진통 성분을 함유해 통증 완화에 효과를 갖췄다. 또 멘톨, 캄파, 박하유 등의 성분이 부기 제거 및 급성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항균 효능이 있는 티몰이 염증 발생 부위에서 소염 작용을 한다.

제일헬스사이언스에 따르면 1980년대와 1990년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파스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고,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국내 파스 시장에 수입되어 있던 일본 제품들은 진입 장벽이 높았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제일쿨파프는 통증에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저렴한 가격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서민들 피로 개선에 필요한 ‘효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제품의 효과·효능도 소비자 주목을 받았고 ‘바쁘다 바빠’, ‘내가 제일파프지’, ‘통증엔 역시 펭귄이 제일’ 등의 광고 문구를 씩씩하게 외치며 서로의 몸에 파스를 붙여주는 감쪽한 펭귄 캐릭터가 남녀노소 모두의 머릿속에 기억되면서 선풍적인 인기가 이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제일파프는 국내 파스 대명사로 자리잡았고 지금까지도 ‘펭귄파스’로 불리고 있다.

2024년, 추억의 ‘펭귄파스’는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올해 1월 1980년대 제품 광고 모델이었던 펭귄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한 ‘40주년 레트로 패키지’를 출시한 것이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40년 전통의 펭귄 캐릭터를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 소환해 ‘지난 40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펭귄파스가 앞으로도 통증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를 상징하는 펭귄 캐릭터를 중심으로 제작한 신규 광고도 공개했다. 과거 광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해당 광고에는 골프, 등산, 테니스 등 다양한 레저를 즐기는 펭귄들이 등장한다. 특히 급변하는 바쁜 현대인의 일상에서 펭귄파스는 변치않는 제품력으로 소비자 곁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가 추억의 제품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새로운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 마련하는 중이다. 특히 기존 약국 공급만 취급하던 유통 채널을 확대해 전 연령층 소비자에게 더욱 친밀



전국 CU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안전상비약 ‘제일쿨파프’(왼쪽부터), 의약품 제일파프쿨, 의약품 제일파프핫.

1984년 의약품 허가 ‘제일파프’ 40주년 맞아 진통성분 함유, 멘톨·캄파 등 부기제거에 도움 40주년 기념 펭귄 캐릭터 중심 신규광고 공개

‘의약품’ 제일파프 쿨·제일파프 핫 추가 구성 CU편의점·다이소에 입점해 제품 접근성 높여

케펜텍·제일롱파프 출시 ‘파스명가’ 입지 굳혀 의료봉사 때 제일 쿨파프 기부 ‘사회공헌’ 앞장



하게 다가가고 있다.

현재 펭귄파스 제일파프는 안전상비약인 제일쿨파프와 의약품인 제일파프 쿨, 제일파프 핫 등 세 가지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의약품인 제일파프 쿨과 핫은 각각 두툼한 냉습포와 온습포를 사용해 부착함과 동시에 찜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육통, 관절통, 신경통, 어깨결림, 허리통증, 뺨, 타박상 등에 적합하다는 것이 제일헬스사이언스 측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들은 밀착포를 부위에 따라 원하는 크기로 잘라서 사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안전상비약으로 분류돼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일쿨파프는 청량감과 냉찜질 효과가 우수한 습포제형 파스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이러한 제일파프의 강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성세대 소비자뿐 아니라 MZ세대까지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지난 2023년 10월 CU편의점 입점을 시작으로 제일파프 제품 접근성을 높였고 올해 3월부터는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 출시 후에도 국내 최초 공기 투과선을 도입한 파스제품인 ‘케펜텍’, 손목과 발목에 감아주듯 부착할 수 있는 ‘제일롱파프’ 등 다양한 제형과 성



제일헬스사이언스가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제일파프의 80년대 모델 펭귄을 다시 선보인다.

분을 갖춘 파스 제품을 연달아 선보이며 ‘파스 명가’의 입지를 굳혔다.

아울러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를 통해 지난 40년간 받은 국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에서 열린 글로벌 기부 행사 ‘2024 옥스팜 트레일위커’에 분사식 진통소염제 ‘제일파프쿨에어’를 후원했다. 이밖에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진행되는 의료봉사에 ‘제일 쿨파프’를 기부하는 등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동참하고 있다. 연말에는 2024년도 연간 판매 금액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파프’를 비롯해 ‘케펜텍’, ‘제일롱파프’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다양한 제형과 성분으로 파프 제품군을 구축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문체부, ‘보조금법 위반’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해임 요구
▲ 손흥민 첫 우승 해낼까... 토트넘, 리그컵 8강서 맨유와 격돌 /사진 뉴시스

▲ ‘韓 유망주’ 김민수, 지로나 1군 첫 선발서 풀타임 활약
▲ ‘탑 위에 탑’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된다



▲ 프랑스서 한류 불꽃 확인... K박람회 성료 /사진 뉴시스
▲ 국립한글박물관, 한글 기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10종 개발